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요한복음 · 이사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요한복음 · 이사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1월의 낙엽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때가 되면
오고가는 발길에 밟히는 낙엽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법칙
침묵으로 순종하는 까닭에,
나는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우리네 손은
자꾸만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굳센 아들 닮은
굳센 의지(意志)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린 손,
원망하지 않고
시린 가슴,
천국의 자비로 재우는 까닭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에
곱게곱게 물드는
가을날의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01년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칙에 말없이 순종하듯,
우리도 그분의 정결하고 참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이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중현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01년 11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이사야 서론

본서의 저자는 책의 제목과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1:1; 2:1; 13:1).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남쪽 왕국인 유다의 예언자로, 웃시아 · 요담 아하스 ·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심판과 구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1:4; 6:1)로서, 그분을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나, 나중에는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41:14,16). 이스라엘은 소경과 병어리된 나라요(6:8,10; 42:7), 황폐케 될 포도원이요(5:1-7), 공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5:7; 10:1,2).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분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으며,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14:1,2), 그들을 죄와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또한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35:9; 41:44), 구원하시는(43:3; 49:8)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43:2,16-19; 52:10-12).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40:21,22; 48:13) 그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실 그 때에 사막에 시내가 넘쳐흐르게 하실 것입니다(32:2).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서 본서에는 평강과 안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11:6-9).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한 왕이 의로움으로 통치하실 것이며(9:7; 32:1), 그로 인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모여들 것입니다(2:2-4).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압제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11:14; 45:14),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성읍' 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42-53장에서 메시아 왕(Messianic King)을 '나의 종' 이

라 칭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41:8,9; 42:1).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와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지만(41:2),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52:13-53:12).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 이 되시므로 (42:6) 심판에 직면한 나라들이(13-23장)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55:4,5)

결국 이사야서는 '여호와와 종' 인 의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아가리라는 그 정점을 향해 예언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성취하신 바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1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 그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용분해

1.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약속(1:1-6:13)
2. 임마누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7:1-12:6)
3.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13:1-23:18)
4.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24:1-27:13)
5.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한 경고(28:1-35:10)
6.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 기록(36:1-39:8)
7.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40:1-66:24)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날이 매우 가까운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단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심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아시고, 그들이 실족치 않도록 미리 이런 사실을 말씀해주심으로 대비케 하셨습니다(1,2,4절)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8절).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풍성히 자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분명히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을 실감하는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였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앞에 둔 자신을 위한 기도(1-5절)이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6-19절) 셋째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20-26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 것이 바로 자신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11절).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② 김창민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관을 받으시며 고난 당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연히 관정에 계시지만 빌라도는 관정 안팎으로 들락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맞으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아시고 자진해서 군병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경솔한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일이 잘못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십니까? 빌라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왕으로 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는 처음부터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면서도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 진리는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사형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끌고다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특이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바로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백성인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버리고 가이사의 충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충신입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 성취의 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도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총살이나 단두대는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6시간의 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고통의 주님을 묵상하며 보냅시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 졌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습니다. 제자들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시체가 도난 당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세계의 경험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 역시 고민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 둔 돌을 옮기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과수꾼을 세우고 돌을 인봉했지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 앞에서 방부제도, 향료도, 무덤도, 세마포도 심지어 사망의 권세도 무의미합니다. 먼저 몸의 부활 이전에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영적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엡 2:5,6).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환희가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 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평강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 다시 나타나셔서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맹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까? 이 길이 예수님을 만져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쉽고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저의 눈을 열어 주님의 부활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애써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과 이 광경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숯불 위에 제자들이 먹을 생선을 굽고 계신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포근하게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어 차례 만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전에 가졌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3-5절). 그 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6-14절). 15-23절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목양 명령과 사도 요한에 대한 장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배반하였던 베드로를 찾아 오셔서 세 번 씩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15,16,17절).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부끄러웠지만 동일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들을 치고 먹이라’고 목양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는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목양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최대 행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잘 꾸며진 외양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여러 사람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양이나 형식의 아름다움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내면도 진실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그럴 듯 해 보이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한 사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 유다가 처한 곤경의 상태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는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가증한 것임을 지적하여,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촉구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1-17절). 그러면서 18-20절에서 이사야는 강경한 태도를 바꾸어 부드러우면서도 애절한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피어린 사랑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21-23절).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주홍같고 진홍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의 보혈을 흘리셨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케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천지 창조 이후 온 세상 만민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전 역사를 두고 끊임없이 타락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 하여도 무엇이랴 항변할 수 있는 시대는 역사상 한 시대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인내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먼저 1-4절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온에 모여 그 공의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 왕국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의 죄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시되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여 거룩하게 함으로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5-22절은 남 유다의 종교적 죄악,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도입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 군사적인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장차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영광스런 하나님의 왕국이 예비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범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혹 범죄 했을지라도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일 매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참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을 통해 당신의 성품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취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이 원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1-7절에서는 유다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식과 식수를 단절시키시고, 모든 군사와 정치와 종교 지도자까지 제하여 버리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여호와와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질서가 붕괴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8-12절). 또한 상류층의 부패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의 재산을 탈취한 것(13-15절)과 그들의 부인들이 사치와 허영, 교만, 음란한 행위를 일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과 사치와 영화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16-26절).

오늘 이 시대도 유다의 상류층의 타락과 동일한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마 6:33)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든 불행이 쏟아져 나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에게 희망만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참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한결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소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2:5-4:1에서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상황이 돌변하여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될 것이며 청결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뢰하고 종교적,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던 남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을 지킨 신실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날은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한 공의에 의해,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죄악이란 높은 빠지기는 쉽지만 헤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악인이 부요하고 명예를 얻는다거나,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을 본다면 죄의 무서움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유다의 모습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하나님)는 포도원(유다)을 위해 기름진 산을 준비하고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준비하고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가 맺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런 포도원은 마침내 울타리와 담이 헐어지게 되고 땅은 황무하게 되어 버려지게 됩니다(1-7절). 들포도로 비유된 유다의 악행은 탐욕과 술취함, 거짓과 교만, 선악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불의한 재판과 학대입니다(8-23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유다는 고통과 절망, 흑암, 고난, 부르짖음이 있는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에서 마침내 전멸될 것 입니다(24-30절).

유다는 앗수르의 침공을 여러 번 받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죄가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회에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문이나 공단의 게시판을 보면 사람을 구하는 광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업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적재적소에 일할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삼중의 환상을 통하여 구속사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고 담대한 일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는 먼저 위를 바라봅니다(1-4절). 천상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5-7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가장 쉬운 기관이 입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불에 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하시고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제 선지자의 입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밖을 바라봅니다(8-13절). 일꾼을 찾을 때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복음전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 제목 / 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합니다. 백성들이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처럼 동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수행됩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의 침략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전달받았습니다(3-9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나(10-11절) 아하스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겸손을 가장하고는 오히려 뇌물을 주고 앓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왕하 16:7-9) 이때부터 유다는 앓수르에 이리저리 간섭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유다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14절).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중심된 흐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살고 있으며, 이 약속에 의지하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크신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한 심령을 혼자서 부여잡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서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빌딩 그늘 아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호소하지만 유다의 아하스왕도 이런 길을 걷다가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앓수르의 힘을 빌려 물리친 유다는 잠시 기뻐하지만, 오히려 앓수르의 압제 아래 약탈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앓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패망을 알려주시고(1-4절), 유다의 안전을 확인해주신(5-10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더 폭넓게는 구별된 자들에게,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11-15절)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16-18절). 그리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물, 명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지치고 힘들 때 나의 손을 굳게 잡아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사야 7-12장은 일반적으로 '임마누엘 서'라 불러 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장에서는 메시아를 큰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흑암의 땅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강림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생긴 유다의 멍에와 채찍을 꺾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또한 갑옷과 피문은 옷을 불에 살라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1-5절). 이와 같이 메시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종국에는 역사의 완성을 실현하십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실 메시아는 인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신성도 지니십니다(6,7절).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속의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는 감격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교만과 골육상쟁의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8-21절).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우리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가운데 구원의 큰 빛,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먼저, 1-4절은 부패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적 만족을 위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에게 화를 선고받는 방백과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죄목들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첫째,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둘째, 제정된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불의를 행하였으며, 셋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자들을 압제하여 치부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는 변호해 줄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아와 과부의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고에 따라 그들 중 얼마는 불잡혀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된 자들 사이에 혹은 아래에 구부릴 것이며 나머지는 죽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밟던 자들은 오히려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4절).

다음으로 후반부 5-34절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5-11절은 앗수르의 심판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앗수르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19절은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한 후에 앗수르도 철저히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20-34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벌하실 때에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범죄한 백성과 나라를 반드시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구속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9절에서는 이새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공의와 통치와 성실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1-5절)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축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6-9절).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공의와 성실의 통치로 인하여 이룩하게 될 왕국의 성격이 점차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나라는 다통이나 전쟁이 없으며 천적관계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들조차도 화해할 만큼 평화가 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열방이 나아오며(10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과 모든 대적들이 그 발아래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3,14절). 특히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가 그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1-12절).

여기에서 싹과 가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싹은 처음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싹이 점점 강해지고 가지가 나와 무성해지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루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찬양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의 구속을 예언한 1-12장까지의 일련의 기사의 종결부분입니다. 또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예언한 11:10-16의 말씀에 따라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은혜의 표현으로 감사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에, 즉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때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1절).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을 대할 때에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만 두어서는 안 되며, 사람들에게 대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진노는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2절).

46절은, 이 복음적인 찬송의 후편입니다. 전편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던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스스로 선동하고, 서로를 초대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산헤립의 폭력에서 보호하신(6절) 예루살렘과 ‘시온의 거민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4절).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5절).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열방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도 그 첫번째 국가인 바벨론에 대한 제1차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메대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시는 내용이며, 6-16절은 그 멸망의 심판 날에는 고통, 놀라운, 슬픔, 잔혹함, 살육 등이 가득할 것이므로 바벨론을 향하여 애곡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00-150년 후인 B.C. 539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 ·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으로서 앗수르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은 매우 미미했지만, 바벨론은 대제국으로 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건만 교만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17-18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으신 군대의 정체를 밝히고 있으며, 그 군대에 의해 멸망한 이후의 참상을 19-2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 무너졌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전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한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할 때는 필연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십니다.(렘전 5:5)

전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3절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본토 귀환과, 본토에서 얻을 안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4-23절에서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멸망에 따른 기쁨과 경고의 노래입니다. 먼저 4-6절은 바벨론 멸망이 여호와와 심판에 의한 것임을, 7-11절은 바벨론 멸망으로 평화를 얻게 된 온 땅의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하였고, 12-14절은 바벨론의 신성 모독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15-20절은 교만에 대한 징벌로써 바벨론 왕의 영혼은 음부에서, 그의 시신은 땅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됨을, 21-23절은 바벨론 왕조의 후손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4-27절은 앗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이미 10:5-19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의 성취는 37:21-38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앗수르의 멸망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과 이 경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8-32절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블레셋이 반 앗수르 동맹을 위해 유다에 보내온 사신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안정을 구하고 그들과의 동맹을 거절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는 세상 나라의 안전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과, 단지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세상 나라들과 동맹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 보다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구하여야 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히 13:6).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주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전신 감주를 입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앞서 바벨론, 앗수르, 블레셋에 이어 네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두 장 15,16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압의 멸망이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며(1-4절), 모압의 위인들이 피난을 가지만 그곳에서도 재앙이 덮쳐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5-9절). 이사야 당시에 모압은 아람과 반앗수르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으므로, 앗수르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12년에 히스기야 통치당시 반앗수르 동맹을 맺었다가 앗수르에 의해 철저한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멸망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재물과 군사력에 의지하여 사는 모든 세상 나라는 필연코 멸망케 됨을 교훈해 줍니다.

세상의 힘보다 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평생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장인 15장에 이어서 모압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본문에서는 모압에 대한 권면과 심판의 양상, 방법, 시기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국인 모압에게 다른 열방들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조공을 바침으로 화친하라는 것입니다(1절). 둘째는 이사야 당시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피난민이 된 남유다의 여러 성읍 백성들을 도와줌으로써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굳게 설 때 그 축복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3-5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였습니다(7절), 7-12절은 대적의 침입의 의해 모든 농작물을 약탈당하게 될 것을 슬퍼하는 선지자의 애가를 노래하고 있고, 13-14절은 급기야 모압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자신의 지식, 부, 명예, 권세 등으로 인하여 쉽게 교만에 빠지기 잘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준엄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1-3절은 이방 10개국에 대한 멸망 예언 가운데 다섯 번째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수도 다메섹을 비롯하여 아람의 모든 성읍들과 백성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왕하 16:5; 대하 28:5,6)

4-11절은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이미 9장에서 거둬진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교만과 패역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어 세속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며(9-11절),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6-8절).

12-14절은 앓수르 군대의 멸절을 '슬프다'라는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막강하던 앓수르 군대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허망할 뿐이며, 나아가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고 의지하는 세상 것들은 없는가?

기도 제목 / ① 헛되고 헛된 영화를 버리고 주님만을 좇게 하옵소서 ② 이소영 ·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13-17장에서 언급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은 주로 열방에 대한 책망과 저주 및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앓수르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 유다의 침입을 계획하고 있을 때 앓수르와 구스의 중간 지대인 놓인 남유다가 정복을 당한다면 구스에게 위협이 되었기에 군사력을 키우며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구스에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1-2절).

3-6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앓수르의 파멸 사실을 지상의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으며, 7절은 앓수르의 파멸을 본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나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대하 32:23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시대의 세계만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이 시대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 조류에 휩쓸려 불안해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잠잠히 택한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도 제목 / ① 세상 문화를 좇지않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 일곱 번째인 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4절은 애굽인들이 내란과 잔인한 군주들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됨을, 5-10절은 애굽의 젖줄이나 다름이 없는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됨을, 11-15절은 존경과 추앙을 받던 지도자들이 조롱을 받는 등 사회 기강이 무너질 것을, 16-17절은 이상과 같은 심판에 의해 애굽이 유다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애굽의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분위기를 전환하여 애굽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22절은 장망성을 포함한 애굽의 다섯 성읍이 여호와의 신앙을 맹세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으며, 23-25절은 애굽으로 인해 앗수르 사람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앗수르,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만이 세계의 열방들이 화해하게 되며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메시아의 공의와 통치로 말미암아 화해된다는 역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일깨워 주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에 남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였습다. 그것은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강국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애굽은 절대 의지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문14절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되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은 당시 전쟁에서 패전하여 포로로 잡힌 자의 모습으로 속옷만 입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남 유다가 앗수르를 두려워하여 애굽이나 주변 국가들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패함은 물론이고 별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6절은 애굽과 구스의 멸망으로 그들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유다를 권면 하신 것은 그의 백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다.

애굽과 구스의 멸망과 또 그들을 의지하던 유다의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로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심판 날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사야는 바벨론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미 13장과 14장에서 주어진 바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다만 멸망할 때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침략군의 위용만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1-10절).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데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도 순식간에 멸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있는 에돔에게는 그 평화도 잠시 뿐이며 곧 그들에게 고통 받는 밤이 올 것이므로 속히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11,12절).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시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한 시기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6절). 아라비아 남부에서부터 베니게와 두로까지 왕래하며 오직 재물 얻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아라비아의 드단 대상들에 대한 멸망 예언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착각하고 자기 입과 배만 위하여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심판 날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이미 1-5장에서 남 유다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더욱 방탕해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또 다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적군의 침입을 받고 혼비백산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치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5-11절)과 그런 비참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탕한 백성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락한 유다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19절에서는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 책임자인 셉나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20-25절은 셉나를 대신하여 등장한 엘리야김도 막강한 권력으로 나라의 유익보다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종국에는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인 남유다 관리들의 부패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위해 세운 대리자들로서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마땅히 나타내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좇아 행치 않는 행악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한 자보다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성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맡겨진 일에 정직과 진실로 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본장에서 당시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한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 도시 중 시돈 다음으로 큰 도시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 부와 영광을 축척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국가였지만 우상숭배가 매우 성행한 나라였습니다(왕상16:31-33). 또한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영리 추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으켰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탐욕으로 인한 부의 축적, 이웃에 대한 억압과 탈취 그리고 불공정한 상거래 등은 아마도 두로와의 무역을 통하여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상업주의 정신의 유입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매우 커다란 폐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찬 두로에 대해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세속적 지혜와 부귀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만히 행했던 두로의 멸망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 부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딤후 6:6-10).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기독교적 자족의 원리를 깨닫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천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서 본장은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에 임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24-27장).

먼저 1-13절은 최후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원인 그리고 모든 죄악된 기쁨과 쾌락이 완전히 소멸 될 것이라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20절은 최후 심판 날에 세계 모든 곳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 들의 여호와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과 심판으로 인한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과 최후 심판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23절은 여호와께서 최후 심판 날에 천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땅의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멸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러한 대 환란이 다가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악인들의 멸시를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징벌의 칼날을 뽑으실 때, 그분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극한 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환란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찬송 / 543장(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본문 / 요 14:25~31

들어가면서(서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임은 점점 더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곧 유다가 배신할 것이고, 자신은 떠날 것이며, 베드로의 헌신마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섬김과 만찬의 기쁨이 있었으나, 암담한 슬픔이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믿는 자들이 본 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게 될 '처소'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1절~4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5절~7절).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8절~15절),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16절~21절), 그리고

참된 평안은 무엇인지(22절~30절)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도마와 빌립과 유다(가룟유다가 아닌 유다)-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과 '도착해야 할 목표',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를 배우게 됩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① 25절~26절 -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② 27절~28절 -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가?

③ 29절~31절 - 믿음으로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2. 다음 주일 설교(‘일어나라...’)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②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음을 모두 아시면서도 그 박해를 피하거나 모면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④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막 16:15을 참고)

나가면서(결론)

1.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딤후 4:6).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쏟아 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믿음의 달음질을 계속하였습니다.

① 그리스도인들이 달음질쳐야 할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결단이 요구되며,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② 반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무엇이 복음전파를 위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③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느 곳이 인생의 종착역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④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제목:

본문:

부속 1부 3장

(부속 1부 3장 1항 1호) 총칙

제1-31조 제1항

(부속 1부 3장 1항 1호)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1조 제1항 1호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과

믿는 자가 돼라

찬송 / 434장(나의 믿음 약할 때)

본문 / 히 3:12~19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이 들어 있는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道理)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1절~2절). 그런데 이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며, 앞으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의 심정을 자극하면서까지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어리석었던 자신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멸망당했던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히브리서 3장 전체를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① 12절~14절 -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② 15절~16절 - 광야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짐은 어떠했는가?

③ 17절~18절 - 광야에서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가?

④ 19절 -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다음 주일 설교(‘믿는 자가 되라’)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본문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② 본문 15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3장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된 말씀입니다(7~8절, 15절). 이 구절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③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④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낙담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이 왜 불신앙입니까?

⑤ 이스라엘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려울 때와 평안할 때 각각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⑥ '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데, 우선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또 한가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⑦ '믿는 자'가 되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계 20:12을 참조)

나가면서(결론)

1.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 그것은 히브리서 3장 7절~8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 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찾지 말고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②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음이 강박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
2.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똑같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었고, 믿음을 거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목 :

본문 :

제 3 과

그러면 어떠하뇨?

찬송 / 306장(감사하는 성도여)

본문 / 롬 3:9~18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3장에는 인간을 아주 심각하게 몰아 부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절망으로부터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5절~20절), 후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면서(21절~31절),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성경의 판단은 모든 인간들에게 매우 불쾌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워낙 다양화되고 다원주의사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가지의 원리에 매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여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원래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때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인간을 향해서 가감(加減)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로마서 3장 전체를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① 9절 -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선언이 무엇인가?

② 10절~12절 -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③ 13절~15절 -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④ 16절~18절 -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길을 걷는가?

2. 다음 주일 설교(‘그러면 어떠하뇨?’)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② 성경은 불의한 자와 의를 전가 받은 자들에 대하여 각각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③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왜 공정한 일입니까?

④ 여러분들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옥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일은 정당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두 가지로 그 정당성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거절하는 인간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형벌을 면하는데 있어서 어렵거나 힘든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즉,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는다면, 결국 그것은 형벌을 피하지 않은 인간의 책임이다.”

나가면서(결론)

1.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결코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의롭다함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칭의를 선행과 연관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목:

본문:

(중독)의 원리

중독이란 무엇인가? 중독이란 어떤 물질이나 습관, 행동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체나 정신에 해를 끼치는 상태를 말한다.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중독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독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중독의 원리는 무엇인가? 중독의 원리는 뇌의 화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중독 물질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방해하여 쾌락, 보상, 학습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화학 물질의 균형을 깨뜨린다. 이로 인해 중독 물질에 대한 갈망과 의존성이 형성된다. 중독은 또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중독 물질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제 4 과

가장 위대하신 건축가

찬송 / 541장(저 요단강 건너편에)

본문 / 히 11:1~11

들어가면서(서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대하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기생 라합, 또한 사사들과 다윗과 선지자들!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중인들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대하면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과 관계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늘나라에 지어진 믿음의 집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망성'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장차 망할 성을 의미함)과 같은 허망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가장 위대하신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이 거할 그 집에 믿음으로 단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지만,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영원한 집,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집! 그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 ① 8절 -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 정리
- ② 9절 -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지 정리
- ③ 10절 -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로 살았는지 정리

2. 다음 주일 설교(가장 위대하신 건축자)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여러분이 거하는 집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열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함께 간략하게 말해보십시오.

②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나름대로 소유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9절에 근거해서 살펴보십시오)

③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창 12:2, 15:5, 약 2:23)

④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두 번째 이유는 위대하신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집,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성은 어떤 곳일까요?(계 21장)

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이 세상의 수많은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건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진 건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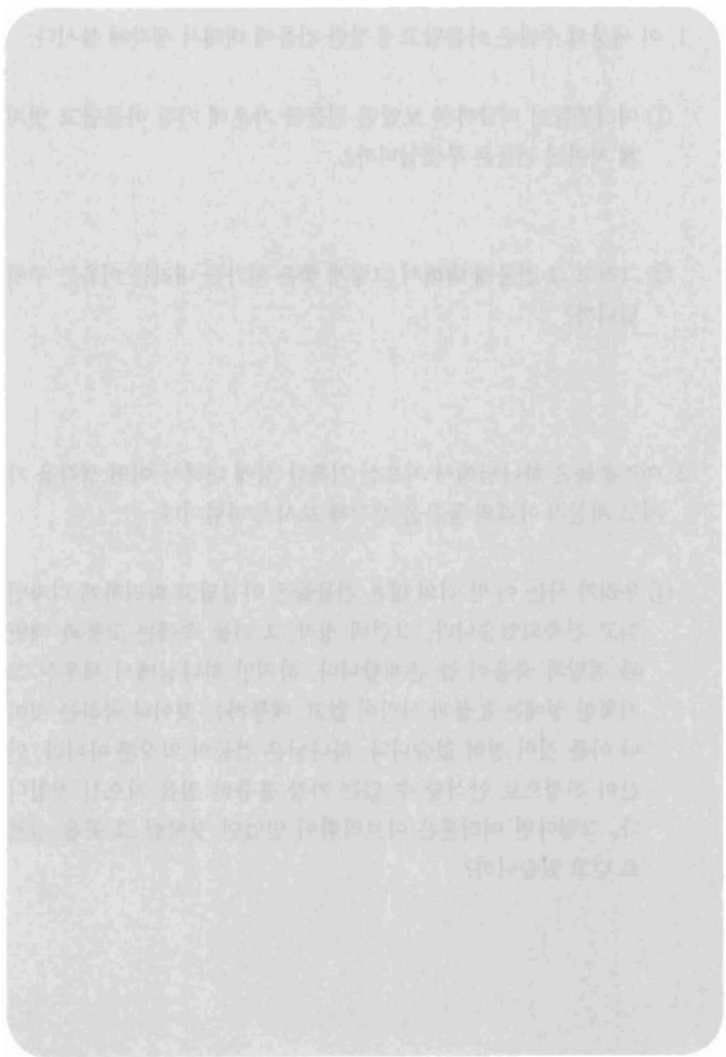
②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래의 물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많은 건물들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디자인되고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건물 속에는 고통과 배반과 절망과 죽음이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성에는 눈물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외장뿐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 곳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제목 :

본문 :



제 5 과

그들이 누구뇨?

찬송 / 514장(누가 주를 따라)

본문 / 사 60:1~8

들어가면서(서론)

심판! 심판! 그리고 또 심판! 이사야는 자기가 사는 시대를 향하여 거친 비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것도 칭찬할만한 것이 없는 시대, 영적인 황폐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길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과의 만남이 유익하기도 했지만, 시대적인 죄악이 고통스럽게 밀려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하여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바라보노라면, 죄악과 깊은 절망만이 그에게 미소짓기 때문입니다.

한 줄기 빛이 비취었습니다. 사납게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등대 불빛을 발견하듯, 거친 눈보라 속에서 연기 피어오르는 오두막을 발견하듯,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이 죄악을 소멸할 참된 왕, 그분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어두웠던 마음을 밝히는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 60장에는 영광 스러움이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며, 그 영광가운데 이 땅의 모든 수치스러운 자들이 나아와서 치료받고 고침 받으며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영영한 빛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통해서 여호와와 영광의 빛을 찾아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지 깨달으십시오. 빛을 찾아 나오는 그들의 겸손한 마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작은 빛으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동대가 되십시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이사야 60장 전체를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① 1절~3절 - 여호와와 영광이 임함에 대해 정리하십시오.

② 4절~7절 - 여호와와 영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③ 8절~9절 - 여호와와 영광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 다음 주일 설교(‘그들이 누구뇨?’)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본문 1절에 기록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뜻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 ② 본문 8절에 기록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까?
- ③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 ④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을 어떠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까?
- 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영광스러움에 동참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 ⑥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가면서(결론)

1.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께 언제나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갈함과 곤고함에 빠졌던 자들이었으며, 인생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된 평강, 참된 용서, 참된 기쁨이 머무는 곳, 참되신 아버지의 집, 진정한 예배,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찾던 것이었습니다.

①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②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다닙니까?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9 과

깨끗케 하심

찬 송 / 144장
읽을 말씀 / 말 3:1-3
외울 말씀 / 롬 12:1

말 3:1-3에 예언된 한 분

-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히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 말 3:2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여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 말 3: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 우리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된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예언된 사람이 그

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된 사람을 위해 길을 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가 홀연히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는 날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는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분은 누구입니까?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2. 다음에 제시된 말씀을 통하여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1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2

-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2-3

- 마 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 마 23:15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 마 23:16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 마 23: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 마 23: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2-4

-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요 4: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2-5

- 요 8: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 만 남았더라
- 요 8: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2-6

- 눅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 눅 19: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눅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2-7

-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벧전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 벧전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3. 다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1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3-2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3-3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결한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의 병기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4.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출현의 만나 · 2001년 1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진호(1-5일), 이성욱(6-10일), 박인기(11-15일)목사
류병희(16-25일), 이성욱(26-30일)목사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청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12-8200) [비매품]
